

11월호

2026

NEWS LETTER

[System Certification](#)

[Product Certific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기업

목 차

1.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2.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제도
3.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인증기관 이전(Transfer) 가이드
4.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신고 관련 개정안
5.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 ISO 9001:2026 국제표준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품질경영시스템(QMS) 국제표준인 ISO 9001이 2026년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품질 문화와 윤리적 행동, 리스크와 기회의 구분,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ICR이 직접 기획·제작한 온라인 전환 교육과정을 통해 주요 개정 내용과 요구사항별 심사 시 고려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 개정 표준에 따른 심사원 역량 확보

ISO 9001 인증심사원은 개정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반영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과정은 기존 요구사항과 개정 내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심사 준비와 심사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심사원 자격 전환에 필요한 교육 및 평가 요건은 ICR 자격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심사원 자격 유지의 필수 요건

규격 개정에 따른 자격 유효성 유지 및 향후 심사 수행 차질 방지

실질적인 심사 적격성 확보

수료를 넘어, 개정 요구사항 기반의 부적합 식별 및 개선 도출 실무 역량 확보

조기 이수 권장

심사원 자격 유지는 물론 향후 심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전환 과정을 이수 권장

* 전환 교육은 단순한 수수료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심사원 자격 유지는 물론 향후 심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 ISO 9001:2026,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2026년 개정판은 **기본 구조(Harmonized Structure)**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규제와 공급망 실사 기준을 반영**하여 조항별 세부 요건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 ISO 9001:2026 핵심 변경 포인트

해당 조항	주요 개정내용	상세 설명
5.1 (리더십과 의지 표명)	품질문화와 윤리적 행동 강조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에 품질문화와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고, 구성원이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환경 조성에 중점
5.2 (방침)	품질방침과 전략적 방향의 연계 명확화	조직의 상황과 전략적 방향을 고려하여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경영활동과 품질경영시스템의 연계 강화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 기 위한 조치)	리스크와 기회의 구분 명확화	리스크를 다루는 활동과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의사결정과 개선활동에 반영
7.3 (인식)	품질문화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식 강화	조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품질문화와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인식 범위 확대
부속서 A	요구사항의 의도와 적용에 대한 설명 보완	주요 개념과 용어, 요구사항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표준의 이해와 일관된 적용 지원

※ 고객중시, 프로세스 접근법, 리스크 기반 사고 및 지속적 개선의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2024년 개정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관련 고려사항도 이어집니다.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ICR에서 ISO 9001 심사원 자격 갱신과 현업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기획·제작한 공식 전환 교육과정의 주요 대상 및 세부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립니다.

■ ISO 9001:2026 개정에 대응하는 심사원 전환 교육 대상

- 기존 ISO 9001 인증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필수 이수 대상)
- 사내 품질 관리자 및 내부심사원
- ISO 9001:2026 개정 대응 및 시스템 전환 실무자

■ ISO 9001:2026 심사원 전환 교육 과정 개요

구분	세부 내용
과정명	[ICR제작] ISO 9001:2026 인증심사원 전환과정
교육 형태	100% 온라인 동영상 강의 (총 4차시 구성)
수강 기간	30일 (기간 내 자율 수강)
수강 혜택	교육 수료 시 자격 전환 평가 요건 동시 인정 (타 기관 수료 시 별도 평가 필요)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 ISO 9001:2026 심사원 전환과정 주요 학습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정 개요	ISO 9001:2026 개정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요구사항 해설	기존 요구사항과 개정 내용의 비교 및 적용 시 고려사항
심사 적용	개정 요구사항별 심사포인트와 객관적 증거 확인
이해도 확인	개정 요구사항별 심사포인트와 객관적 증거 확인



ISO 9001:2026 개정 대응 심사원 전환 교육과정 안내

■ 왜 ICR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해야 하는가? (ICR만의 특징점)

POINT 01 ICR 단독 혜택 교육 수료와 평가 요건을 동시에 원스톱(One-Stop) 충족

타 기관 이수 시 별도의 평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ICR 원격평생교육원 과정은 수강 후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수료와
심사원 전환 평가 요건을 한 번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POINT 02 ICR이 직접 기획·개발한 '공식 자체제작' 실무 중심 과정

공인 인증기관 ICR의 심사 실무 노하우를 집약하여 제작한 오리지널 과정입니다.
단순 규격 낭독이 아닌, 실제 심사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조항별 쟁점과
'심사 시 확인사항', '문서화 가이드'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POINT 03 100%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자율 수강

현업 심사 및 업무 일정으로 집체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해진 학습
기간(30일) 내 언제 어디서나 PC 및 모바일로 자유로운 반복 학습과 자율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ICR 시스템인증 서비스

기후변화와 공급망 관리 강화 흐름 속에서, ICR은 전문적인 심사 노하우로 표준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심사 계획부터 인증, 사후관리까지 귀사의 환경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드립니다.

 문의처

시스템인증센터

T. 02-6351-9001 / kgb@icrqa.com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대상 기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 '자율'이지만 신고는 의무입니다.

'자율'은 제조자·수입자가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면제 사유가 없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	신고서 제출 시점
제조자 또는 수입자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

■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드릴·평삭·형삭·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대패·루타·띠톱·모떼기)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산업용 로봇

물건을 집고 옮기는 자동화 로봇
3축 이상 + 전용 제어기를 갖춘
프로그램·자동제어 가능한 고정식 로봇



컨베이어

벨트·롤러 등으로 물건을 연속 운반
동력으로 작동하는 지정 형식이 대상
이송거리 3 m 이하인 것은 제외

※ 세부 적용범위는 품목별 기준을 따릅니다.



컨베이어 명판 예시

품명 / 모델명	컨베이어 / CV-01
제조사	예시 제조사
전원 정격	3상 AC 380 V, 60 Hz
운반능력	100 kg/h
제조번호 / 제조연월	SAMPLE-001 / 2026.10
자율안전확인신고 번호	신고 후 부여된 번호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 자율안전확인신고, 어떤 시험·평가가 필요할까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기준에 따른 확인·시험·평가 결과를 준비하여 신고합니다.

01

전기안전시험

접지연속성·절연저항·
내전압 등 안전성 확인

02

전자파시험 (EMC)

전자파 내성 등 확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03

위험성평가

기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호 대책 검토

※ 실제 시험·평가 항목과 제출자료는 품목 및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객지원팀

Tel. 070-5083-7906, 070-5083-2683 / icr@icrqa.com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The graphic features the ISO logo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xt on the left. In the center, two buildings labeled 'ISO Certification Body A' and 'ISO Certification Body B' are connected by a large blue circular arrow labeled 'Transfer'. Below this, a desk setup includes a stack of blue folders labeled 'ISO', 'Certification', and 'Transfer', a clipboard with a document titled 'ISO Certification Transfer' containing a checklist with items 'Checklist', 'Application Documents', and 'Process Guide' (all checked), and a laptop. Two green buttons are present: '이전 신청 전 체크리스트' (Checklist before application) and '이전 신청 준비 서류' (Documents for application).

■ 심사 비용과 인증 공백 부담을 줄이는 인증기관 이전(Transfer) 가이드

매년 심사 시즌이 돌아오면 심사 비용, 피드백 속도, 심사원 서비스 품질 등을 이유로 **인증기관 변경을 고민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때 실무자가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Q 인증기관을 바꾸면 처음부터(1·2단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Q 이전 과정 중에 인증이 끊겨 입찰이나 납품에 문제가 생기면 어찌죠?

유효한 공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인증기관의 사전검토(IAF MD 2 기준)를 거쳐 인증기관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심사를 반복하지 않고 기존 인증주기와 최초 등록일을 승계하므로 인증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 인증기관 이전(Transfer)의 핵심 원칙 3가지

01. 인증 연속성 유지

IAF MLA 상호인정 협정 인정기구 범위 내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라면 최초심사(1·2단계)를 다시 받지 않고 사전 서류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이전됩니다.

02. 기존 인증주기 승계

사전검토 시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3년 인증주기와 최초 등록일을 그대로 승계하며, 남은 잔여 주기에 맞춰 향후 심사계획을 맞춤 수립합니다.

03. 인증 공백 최소화

이전 진행 중에도 기존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존 인증서 효력은 유지되며, 신규 인증서가 발행되는 날 최종 교체되므로 납품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 이전 타이밍과 실무 권장 일정

인증 유효기간 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정기 심사 일정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OPTION A

- 정기 사후심사 시기 연계

- 사전 서류검토 후 사후심사 연계
- 기존 3년 주기 유지 (잔여 주기 승계)
- 사후심사 예정일 기준 최소 2~3개월 전 접수

OPTION B

- 갱신심사(재인증) 시기 연계

- 사전 서류검토 후 갱신심사 연계
- 새로운 3년 주기 시작
- 인증 만료일 기준 최소 2~3개월 전 접수

※ 신규 인증기관은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 '인증결정 위원회 승인'을 완료해야 하므로, 심사 예정일 또는 인증 만료일 기준 **최소 2~3개월 전** 사전 서류검토를 착수하는 것이 일정상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 이전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인증서 적격성 및 인증 상태 확인

✓ 공인 인증 여부

IAF MLA 또는 지역 MLA 서명 인정기구
범위 내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 필수

✓ 인증 정지 상태

정지 상태에서는 이전 불가하며 정지
사유 해소 및 회복 완료 후 검토 가능

✓ 미결 중대부적합

미결 시 신규 기관의 시정 및 조치 이행
확인 전까지 신규 인증서 발급 제한

✓ 경부적합 조치

시정·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수립,
제출하여 신규 인증기관의 수용 필요

2 이전 신청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항목	비고 / 필수성
현재 유효한 ISO 인증서 및 부속서 사본	필수 확인
최근 정기 심사 보고서	갱신보고서와 별도
미결 부적합 및 시정조치 종결 자료	조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신 정보 확인

3 실무 중요 확인: 기존 인증기관과의 사전 협의 사항

인증 이전 진행 전, 기존 인증기관과의 계약 관계 및 보고서 발급 협조여부를
반드시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행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 신청부터 새 인증서 수령까지

사전 서류 준비부터 현장심사 및 사후 등록 갱신까지 원스톱
(One-Stop) 프로세스 안내

STEP 01

서류 제출

이전 신청서, 현재 유효한 인증서, 최근 심사보고서 및 조직 현황 자료 접수

STEP 02

사전 검토

인증 유효성, 인증 범위 일치 여부, 미결 부적합 및 법규 준수 현황 정밀 확인

STEP 03

인증 결정 및 심사

잔여 기간 심사계획 수립 후 정기 사후 또는 갱신심사 일정에 맞춰 현장심사 수행

STEP 04

신규 인증서 발행

인증결정 승인 후 기존 최초 등록일과 3년 주기를 승계한 새 인증서 교부

※ 새 인증서가 발행되면 인증서 번호와 인증기관 표기가 변경됩니다.

공공입찰 사이트(나라장터 등), 주요 고객사/협력사 등록 포털, 회사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인증 마크 표기를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 인증기관 이전 실무 FAQ

기업 담당자가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는 3대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

Q1 기존 인증기관이 심사보고서 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필수 심사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이 거부되고 '신규 고객'으로 처리되어 1:2 단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자료 열람 및 교부 권한을 확인하시고, 대체 가능한 이전 기록 확보 방안을 신규 인증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Q2 이전 진행 중 정기 사후심사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느 기관이 사후심사를 수행할지 명확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심사 허용 주기(통상 직전 인증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를 넘기면 인증 정지·취소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전 신청 시 직전 심사 일을 반드시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Q3 품질(9001)과 환경(14001) 등 복수 통합 인증도 한 번에 이전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 별 인증 만료일과 사후심사 주기, 부적합 조치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인증서 사본과 각 규격 별 최근 심사보고서를 함께 접수 하여 병합 심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일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 ISO 인증기관, 바꿀 수 있을까?



안정적인 인증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ICR 시스템인증 서비스

인증기관 이전은 인증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심사의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ICR은 풍부한 산업별 심사 노하우와 국제 표준 지침(IAF MD 2)에 기반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귀사의 안정적인 경영시스템 운영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시스템인증센터

T. 02-6351-9001 / kgb@icrqa.com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신고 관련 개정안



■ 에너지소비효율 효율등급제도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 의무여부: 1~5등급(또는 최저효율) 라벨을 제품에 부착
- 대상품목: 등급 25개, 최저 17개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신고 관련 개정안

■ 효율관리기자재 제도 개선

- 관련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9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적용 시행일: 미정 (추후 개정안 행정예고, 품목 별로 상이)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1. 측정 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

구분	내용
대상	효율 등급 표시 품목 (*최저 효율 표시 품목 관계 없음)
세부 내용	측정 사후 관리 시 소비전력량 등 측정 결과에 따라 점검한 효율 등급항목 삭제 - 소비전력량, 용량, 효율등급부여기준(R) 등 점검항목이 허용오차 이내로 적합임에도 불구하고, 효율등급에서 허용오차가 없어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 해소

❖ 2.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 시행일자 삭제

구분	내용
대상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난방기, 텔레비전수상기, 제습기 등 9개 품목
세부 내용	중장기 목표소비효율은 유지하되, 시행일자는 삭제 - 3년 단위 정기적 효율기준 상향에서 고효율 등급 보급률 현황, 기술개발 한계 등 품목별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운영 유연성 제고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신고 관련 개정안

❖ 3. 선언값 신고 의무조항 신설

구분	내용
대상	효율관리기자재 전 품목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수입업체에서 라벨 표시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측정결과보다 낮은 소비효율 또는 효율등급을 표시할 경우 시험성적서에 기재 후 신고 필요 (단, 효율 등급은 1 등급 이내로 조정 가능) - 제품 측정 결과만 신고 후 라벨에는 낮은 소비효율 또는 효율등급을 기재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혼란 해소 및 신고 데이터와 라벨 표시데이터 일원화

❖ 4. 측정, 신고, 표시, 사후관리 전주기 절차 개선 사항

구분	내용
측정	제조사가 원할 경우 측정 값과 별도로 선언 값을 병기
신고	각 모델 별로 신고 시, 측정 값과 등급 라벨에 기재 할 선언 값을 신고 - 시험성적서 상의 측정 값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 측정 값을 신고 값으로 간주 - 시험성적서 상의 선언 값을 라벨에 기재하는 경우 선언 값을 신고 값으로 간주
표시	신고 시, 라벨 기재를 위해 입력한 신고 값 표시
사후 관리	신고 값과 비교하여 적합/부적합 판정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신고 관련 개정안

❖ 5. QR코드 기반 전라라벨(e-라벨) 도입 등 라벨 디자인 개선

구분	내용
대상	효율관리기자재 전 품목 (단, 어댑터 · 충전기 제외)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라벨 디자인에 QR코드 신설로 가독성을 개선하고 정보제공방식 디지털 전환 추진 - 효율등급, 단위기간 소비전력량 및 에너지비용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위주로 라벨 기재사항 정비하고, 이외에 기기 효율관련 정보는 QR로 제공



※ 참조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https://eep.energy.or.kr/notice/view.aspx?no=326&cate=1>

문의처
고객지원팀

Tel. 070-5083-7906, 070-5083-2683 / icr@icrqa.com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ICR

피지컬 AI 확산과 현장 혁신을 위한 전파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체감지 레이더
사람·차량·사물 등의 정확한 감지

산업용 무선충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전자파적합성 평가
전자기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피지컬 AI 확산과 현장 혁신을 위한 전파규제 개선

산업현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파 이용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 제조·물류 현장 물체감지레이다 실외 허용 및 산업용 무선충전 출력기준 상향 방안 마련
- 국방·방산 분야 실험국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2032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교체 부담 해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피지컬 AI 확산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파이용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파규제 개선**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산업현장 수요 발굴을 바탕으로, ① **신산업 혁신 지원**, ② **생활속 전파이용 체감편의 제고**, ③ **안전·재난 예방 지원**에 방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 1. 신산업 혁신 지원

01

물체감지 레이더 실외 운용 확대

76~81GHz 레이더의 운용 범위를 공장 야외 주행공간, 주차장, 상하역장 등으로 확대하는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02

산업용 무선충전 허가면제 기준 완화 검토

허가면제 출력 요건을 기존 1kW 이하에서 3kW 이하로 상향 검토하고,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03

국방·방산 실험국 허가 패스트트랙

전파실험 허용지역 지정과 사전 통합검토를 통해 허가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04

전자파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완제품 적합성 평가 시 모듈 시험내역 공개 및 인증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본 제출을 인증번호 조회로 갈음합니다.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 2. 생활 속 전파이용 편익

05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

400MHz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기기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06

청각약자 공익 안내서비스 시범 도입

2027년부터 히어링 루프와 블루투스 Auracast 등을 활용해 공공시설 이용 및 긴급재난 정보를 개인 수신기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 3. 국민 안전·재난 예방

07

GPR·WPR 기술기준 마련

싱크홀 예방과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지표투과·벽투과 레이더의 이용대역과 출력 제한 등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08

조류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류의 위치·이동경로를 탐지하는 레이더의 주파수대역과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